



Layer of Busan Vol. 3

개금동 근대주택

開琴洞 近代住宅

개금동의 그 봄

A Spring Observed, Gaegeum-dong

2021년 봄의 기록이다.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했던 이 건축물을 1978년 건립되었다. 한 기업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누군가의 삶이 깃들었던 공간은 2021년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소멸의 문턱에서 3월과 4월 이 공간을 오갔다. 건축은 재료의 물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독특한 미학을 드러낸다. 거친 질감의 화강석 블록과 정교한 육각형 패턴의 천장은 당대 장인들이 구현한 조형적 질서의 산물이다. 기하학적인 질서의 목재 창살과 황동제 부속품은 한 시대의 미학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단서들이다. 별채인 초당은 일본식 가옥의 외양과 창호 양식이 정원의 차경과 결합된 절충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념관이 사라진 부지에는 현재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과거의 정원과 건축물이 있던 자리는 이제 타인의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대체되었다. 이미지는 공간의 부재를 통해 비로로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 물리적 공간은 소멸했으나 응시의 순간이 박제된 프레임 속에서 건축의 시간은 지속된다. 그해 봄 장소가 사라지기 직전의 가장 고요한 마주침에 대한 기록이다.

Spring 2021.

This structure in Gaegeum-dong Busan was built in 1978. Once a symbol of industry and a vessel for life it faced its final days in 2021. I spent March and April within its fading walls watching the silence. The architecture speaks through its materials. The rough granite and hexagonal ceiling patterns reveal a strict formal order. Each wooden frame and brass fitting acts as a silent witness to a past aesthetic. The separate house Chodang shows a unique blend of styles. Its Japanese exterior meets the traditional garden creating a brief moment of harmony. Now high-rise apartments stand on this ground replacing the garden and the old home. Images reveal the essence of a place through its absence. The physical space is gone but the time of the architecture lives on within the frame. This is a record of a silent encounter just before a world disappeared.



























